

17
135
77710

碩士學位論文

일본어 수동문에 대한 생성문법적 고찰

指導教授 金 公 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金 善 珠

1999年 2月

일본어 수동문에 대한 생성문법적 고찰

指導教授 金 公 七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11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善 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善珠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8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일본어 수동문에 대한 생성문법적 고찰

金 善 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公 七

일본어에는 직접수동문과 간접수동문이라는 형태의 수동문이 있는데, 두 수동문에 어떤 통사적 관련이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전통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명시적으로 해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생성문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여 그 분석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GB이론의 틀 안에서 두 수동문의 통사적 관련이나 차이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초기의 분석에서는 수동문은 능동문으로부터 변형규칙에 의해 파생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70년대에는 직접·간접수동문의 파생에 대해 두 수동문이 동일하게 내포문구조로부터 파생된다고 하는 Uniform Theory와 직접수동문은 능동문으로부터, 간접수동문은 내포문구조로부터의 파생을 가정하는 Nonuniform Theory의 논의가 대립하였다. 필자로서는 동일한 수동형태소 rare를 가지는 직접·간접수동문에 동일한 D-구조를 가정하고 있는 전자의 입장이 좋다고 보지만, 이러한 6, 70년대의 논의는 모두 조작이 복잡하고 지나치게 많은 변형규칙과 제약을 적용하고 있어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규칙 중심에서 원리 중심으로 바뀐 GB이론에 이르러서는 수동문의 분석에 있어서도 격이론, θ -이론 등의 원리의 상관관계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VP내부주어가설과 격흡수가설, θ -role흡수가설 등에 입각하고 있으며, 수동문은 애초부터 능동문과는 별개의 D-구조를 가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격흡수분석

은 수동형태소의 목적격흡수와 주어 θ -role 흡수에 의해 수동문의 파생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격흡수분석만 가지고는 일본어의 간접수동문의 파생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여, 수동형태소의 θ -role의 흡수라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격의 흡수를 수의적인 것으로 하여 간접수동문을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θ -role의 흡수분석에서도 직접·간접수동문에 통일적인 D-구조 설정이 안 되고, 간접수동문을 위한 다주어 구문의 생성 이유가 불명확한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수동형태소의 기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직접·간접수동문에 대해 VP내부주어가설에 입각하여 수동술어를 술어로 하는 동일한 D-구조를 설정하고, 수동형태소의 어휘범주 여하에 따라 동사가 이동하여 수동형태소와 결합하도록 하는 동사이동분석에 의해 수동문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곧, 영어의 수동형태소 -en은 [+N]범주이어서 격이 필요하며 따라서 동사도 반드시 타동사이어야 하지만, 일본어의 수동형태소 rare는 [-N]범주이기 때문에 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동사는 자동사이어도 타동사이어도 된다. 이러한 rare의 성격 때문에 일본어의 경우 자동사에서 형성되는 수동문도 가능하고 타동사에서 형성되면서도 목적격이 흡수되지 않는 타동사의 간접수동문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동사이동은 통사부문 뿐만 아니라 음운부문에서도 일어나므로, 통사부문에서 일어나는 1)직접수동문, 음운부문에서 일어나는 2)타동사에서 형성되는 간접수동문, 통사부문과 음운부문에서 일어나는 3)자동사에서 형성되는 수동문과, 그리고 음운부문에서 일어나는 수동형태의 4)존경문도 파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동사이동분석으로 여러 가지 수동문에 대한 D-구조 설정문제라든지, 영어와는 달리 일본어에서 자동사의 수동문이나 타동사의 간접수동문 등이 생성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것으로 영어수동문이나 일본어의 수동문도 본래 공통된 D-구조의 파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이로 해서 개별언어의 Parameter의 차이, 곧 수동술어 범주의 Parameter의 차이로 두 언어의 수동문의 파생과정과 수동형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목 차

I . 머리말	1
II . 일본어수동문의 여러 형태	3
2.1 직접수동문	3
2.2 간접수동문	4
2.3 ni yotte 수동문	7
III . 일본어 수동문에 대한 초기의 분석	9
3.1 초기이론	9
3.2 Uniform Theory와 Nonuniform Theory	10
3.2.1 Uniform Theory	10
3.2.2 Nonuniform Theory	13
3.2.3 Howard의 이론	16
IV . 일본어 수동문에 대한 GB이론적 접근	21
4.1 기본적 개념	21
4.2 격흡수가설에 의한 분석	24
4.3 θ -role흡수가설에 의한 분석	27
4.4 동사이동분석	30
V . 맺는말	37
<input type="checkbox"/> 참고문헌	40
<input type="checkbox"/> 〈Abstract〉	43

I . 머리말

일본어 수동문을 고찰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는 과연 일본어 수동은 다른 언어 예컨대 영어와 통사적으로 동일한 파생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일본어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직접수동과 간접수동은 통사적으로 어떤 관련이나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전통문법의 연구방법으로는 명시적으로 해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김공철 1989:78, 양동휘 1994:8 참조). 생성문법에서도 초기에는 두 수동 사이를 영어와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에 대한 단순한 이동변형(Movement)으로 분석하였다(김공철 1989:120-121 참조). 이후 진전된 논의에서는, 직접수동과 간접수동에 대해서, 동일한 기저에서 생성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저에서 생성되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다(Shibatani 1972, Kuno 1973, Howard, I. & A.M.N. Howard 1976 참조). 그리고 GB이론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으로 수동문은 능동문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하여 능동문과 다른 기저구조를 설정하고 있으며(Chomsky 1981:124), 격흡수방식 혹은 다른 방법으로 수동문을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직접수동문과 간접수동문의 구별이 있는 일본어 수동문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초기의 분석방법과 두 수동의 기저구조에 대한 Uniform Theory와 Nonuniform Theory, 그리고 Howard의 이론 등의 과거의 논의를 고찰하고, GB이론에 입각한 격흡수방법 혹은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일본어의 수동을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다시 말해서, 1) 직접수동문, 2)타동사에서 형성되는 간접수동문, 3)자동사에서 형성되는 수동문이 통일적으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지 보기로 한다.

이하에서 예문 제시는 1. 일본어 표기문, 2. 로마자표기, 3. 한국어의 대역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2는 일본어 문의 형태소 표시를 보다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며, 3은 한국어와의 대조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어 대역이 어색

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 한국어와 일본어의 구조상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¹⁾



1) 이 논문에서의 로마자 표기는 김공철(1983:101)에 의거 음운표기 하였다.
(단, ta행만은 t로 통일함)

Ⅱ . 일본어수동문의 여러 형태

2.1 직접수동문

다음은 일본어 직접수동의 예들인데 (1a)와 (2a)가 능동문이고 (1b)와 (2b)가 그 짝이 되는 직접수동문이다.

(1) a. 太郎が 絵を 盗んだ。

Taroo-ga e-o nusun-da.

타로가 그림을 훔쳤다.

b. 絵が 太郎に 盗まれた。

E-ga Taroo-ni nusum-are-ta.

그림이 타로에게 도둑맞았다.

(2) a. 兄が 弟を 殴った。

Ani-ga ootoo-o nagut-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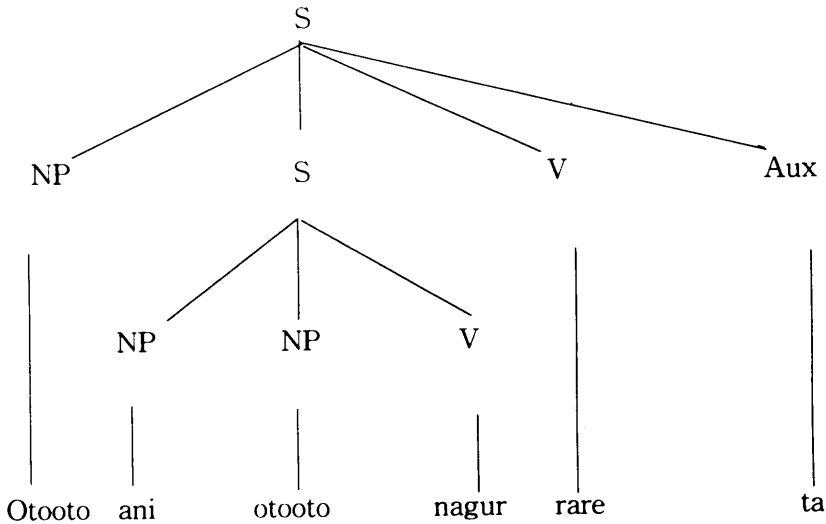
형이 동생을 때렸다.

b. 弟が 兄に 殴られた。

Ootoo-ga ani-ni nagur-are-ta.

동생이 형에게 때맞았다.

c. (2b)의 D-구조



- (3) (영어의 예) a. Taro stole the painting.
 b. The painting was stolen by Taro.

직접수동문의 경우에는, 영어와 같이 능동문을 기본으로 해서 수동문이 형성 되는데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직접목적어는 주어 자리로 상승한다. (1a)와 (2a)의 문에서의 직접목적어 NP는 목적격 조사 o로 표지되지만, 수동변형에 의해 주어자리로 상승하게 되면 그 NP는 주격조사 ga가 수반된다. 둘째, 능동문의 원래의 주어(original subject)는 ni(영어의 경우 by)와 함께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수동형태소 rare(영어의 경우 -en)는 동사의 어간에 접미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영어에서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

2.2 간접수동문

영어에서 수동문은 반드시 타동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수동문의 S-구조 주어는 D-구조의 목적어 위치로부터 이동되었다고 가정하므로, 그러한 목

적어를 가지는 동사는 타동사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어에서는 직접수동 이외에 간접수동 혹은 피해의 수동이라고 불리우는 형태의 수동이 있으며(김공철 1980:174, Tsuzimura 1996:238), 그 간접수동은 타동사나 자동사를 기본으로 하여 형성될 수 있다. 다음의 예에서 (4a)는 능동문이고, (5a)는 자동문이다. 이에 대해 (4b)는 타동사에서 형성된 간접수동문이고 (5b)는 자동사에서 형성된 간접수동문이다.

(4) a. 隣の 人が ピアノを 朝まで 弾いた。

Tonari-no hito-ga piano-o asa-made hi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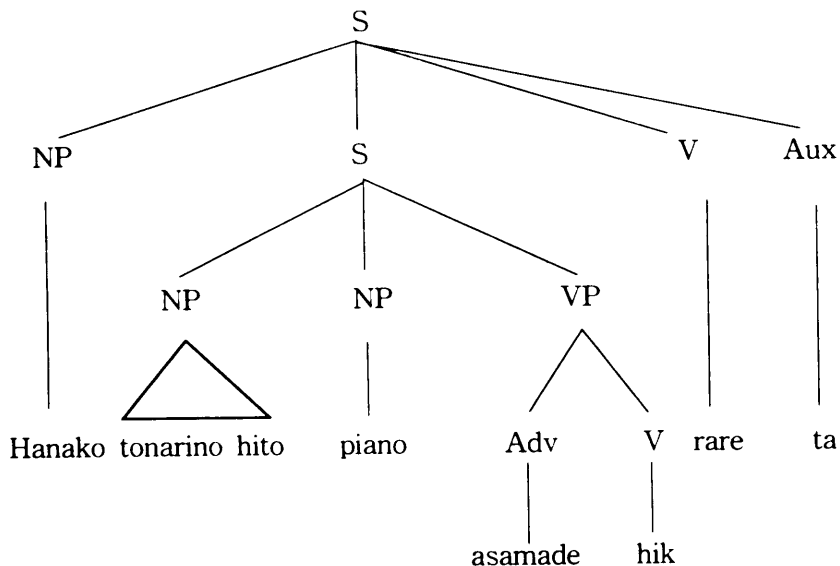
옆집 사람이 피아노를 아침까지 쳤다.

b. 花子が 隣の 人に ピアノを 朝まで 弾かれた。

Hanako-ga tonari-no hito-ni piano-o asa-made hik-are-ta.

하나꼬가 옆집 사람에게 피아노를 아침까지 치는 일을 당했다.

c. (4b)의 D-구조



(5) a. 子供が 死んだ。

Kodomo-ga sin-da.

자식이 죽었다.

b. 太郎が 子供に 死なれた。

Taroo-ga kodomo-ni sin-are-ta.

타로가 자식의 죽음을 당했다.

(6) * John was died by a child.

(4a)의 동사는 타동사이므로 수동의 형성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그 경우의 수동의 의미는 직접수동문에서 예측하는 것과 다르다. 영어에서는 자동사를 가지는 문은 수동문 짝을 가지지 않게 되어 있다. 바로 (6)은 자동사에서 만들어진 수동문이 영어에서는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일본어 문 (5a)에서의 동사는 자동사이며, (5)의 (b)문은 문법적인 수동문이 되고 있다.

간접수동문에 관해서는 분명히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 특징을 검토해 보면, 첫째, 위의 (4a), (5a)문의 주어 NP는 (4b), (5b)문에서는, 내포문의 주어 NP가 되는데 그것이 상승하면서, ni와 함께 나타난다. 위의 예문에서 tonari-no hito '이웃집 사람', kodomo '자식'가 그런 NP에 해당한다. 간접수동의 이러한 ni-phrase는 의무적이다. (4)-(5)의 (b)문에서 ni phrase가 빠진 다음의 예들을 비교하자.

(7) * 花子が ピアノを 朝まで 弾かれた。

Hanako-ga piano-o asa-made hik-are-ta.

(8) * 太郎が 死なれた。

Taroo-ga sin-are-ta.

대조가 보이는 바와 같이, 간접수동은 ni-phrase의 존재를 요구한다. 한편, 직접수동에서의 ni-phrase는 수의적이다.

둘째, (4)-(5)의 (a)문과 (b)문 사이의 NP 수를 비교했을 때, 후자가 새로운 NP 즉 새로운 주어를 포함하고 있다. 곧, 새로운 주어는 간접수동문 짝에서 부가된다. 예를 들면 (4b)에서 Hanako는 다른 두 개의 NP 즉 tonari-no hito ‘이웃집 사람’와 piano ‘피아노’ 이외에 부가된 여분의 NP이다. 마찬가지로 (5b)에서 Taroo도 NP kodomo ‘자식’ 이외에 부가된 NP이다.

셋째, 결과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피해적’이다. 부가된 주어는 본래의 문에서 나타나 있는 사건에 대해 ‘피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5b)에서 Taro는 그의 자식의 죽음에 의해 피해적으로 영향받는 사람이다(Tsuzimura 1996 : 238-241).

2.3 ni yotte 수동문

위의 두 가지 형태의 수동 외에도 ni yotte 수동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형태의 수동의 경우가 있다(Tsuzimura 1996:241). ni yotte 수동은 ni yotte가 후치사 ni 대신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직접수동의 면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보인다.

(9) a. 太郎が 同僚に 批判された。

Taroo-ga dooryoo-ni hihans-are-ta.

타로가 동료에게 비판받았다.

b. 太郎が 同僚によって 批判された。

Taroo-ga dooryoo-ni yotte hihans-are-ta.

타로가 동료에 의해 비판받았다.

(9a)형태의 수동을 ni 수동, (9b)형태의 수동을 ni yotte 수동이라 한다. ni와 ni yotte는 모두 주어진 수동문의 동작주로서의 NP를 표지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양자는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ni가 ni yotte에 의해 치환될 수 없는 ni수동문의 예가 있으며 오직 ni yotte만이 허가되는 수동문도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면,

(10) a. 太郎は 昨日 雨に 降られた。

Taroo-wa kinoo ame-ni hur-are-ta.

타로는 어제 비를 맞았다.

b. * 太郎は 昨日 雨によって 降られた。

Taroo-wa kinoo ame-ni yotte hur-are-ta.

타로는 어제 비에 의해 맞았다.

(11) a. 開会が 議長によって 宣言された。

Kaikai-ga gityoo-ni yotte sengens-are-ta.

개회가 의장에 의해 선언되었다.

b. * 開会が 議長に 宣言された。

Kaikai-ga gityoo-ni sengens-are-ta.

개회가 의장에게 선언되었다.

특히, (10)의 수동문은 간접(혹은 피해의)수동문의 예인데, (10b)에서 ni yotte는 간접수동문에서는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11)의 수동문은 그와 달리, 이들 예에서는 ni yotte만이 사용되며 ni에 의한 치환은 비문법적인 수동문이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 중에도 예외가 있고, 그 외에도 의미적·통사적으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ni 수동과 ni yotte 수동의 관계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직접수동과 간접수동의 관계만을 다루고 ni yotte 수동은 다루지 않는다.

Ⅲ. 일본어 수동문에 대한 초기의 분석

3.1 초기이론

생성문법의 초기에는 영어에서는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은 능동문으로부터 수동문이 파생된다고 보았다.

- (12) a. The teacher scolded John.
b. John was scolded by the teacher.

영어의 수동문 형성에서는, 수동문이 그들의 능동문 짝으로부터 파생된다고 가정했을 때, 취해지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직접목적어는 주어 위치로 상승 또는 이동된다. 둘째, 본래의 주어는 전치사 by의 목적어가 되면서 이동된다. 셋째, 동사의 형태는 앞에 be가 배치되면서 과거분사로 바뀐다. -en이 그 표시이다. 이들 변화들은 (1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수동변형으로 포착될 수 있다.

(13) Passivization SD : NP—Aux—V—NP

SC : X₁—X₂—X₃—X₄ ⇒

X₄—X₂—be+en—X₃—by+X₁

(김공철 1989 : 120 참조)

일본어도 영어와 같은 수동변형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일본어의 예이다.

- (14) a. 先生が 太郎を 叱った。
Sensei-ga Taroo-o sikat-ta.
선생님이 타로를 야단쳤다.

b. 太郎が 先生に 叱られた。

Taroo-ga sensei-ni sikar-are-ta.

타로가 선생님에게 야단맞았다.

(15) 일본어의 수동화 SD : NP—NP—V—Aux

SC : X₁—X₂—X₃—X₄⇒

X₂—X₁+ni—X₃—rare—X₄

직접목적어 Taroo는 주어자리로 상승하고, 본래의 주어는 영어의 by 대신 ni의 목적어가 되고, 동사의 형태는 영어의 과거분사 -en대신 rare가 배치된다 (김공철 1989:121 참조).

그러나 일본어의 수동문에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해당하는 능동문을 가지지 않는 이른바 간접수동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수동문의 한 가지인데도 초기의 변형규칙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이러한 변형규칙은 직접수동문 처리에 있어서도 조작도 번잡하여 수동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하여 논의가 계속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으로 Uniform Theory와 Nonuniform Theory가 있다.

3.2 Uniform Theory와 Nonuniform Theory

3.2.1 Uniform Theory

일본어 생성문법에서 직접수동문과 간접수동문의 처리에 관한 1970년대의 이론에는 Uniform Theory와 Nonuniform Theory의 대립이 있다. Uniform Theory는 일찍이 Kuroda(1965:174-175)가 제안한 바와 같이 직접수동문과 간접수동문 모두에 동일한 구조, 내포문 구조를 가정하는 것이다. Howard(1976)도 이에 따르고 있다.

(16) a. 花子が 太郎に 殺された。

Hanako-ga Taroo-ni koros-are-ta.

하나꼬가 타로에게 살해되었다.

b. 太郎が 父親に 死なれた。

Taroo-ga titioya-ni sin-are-ta.

타로가 아버지가 죽는 것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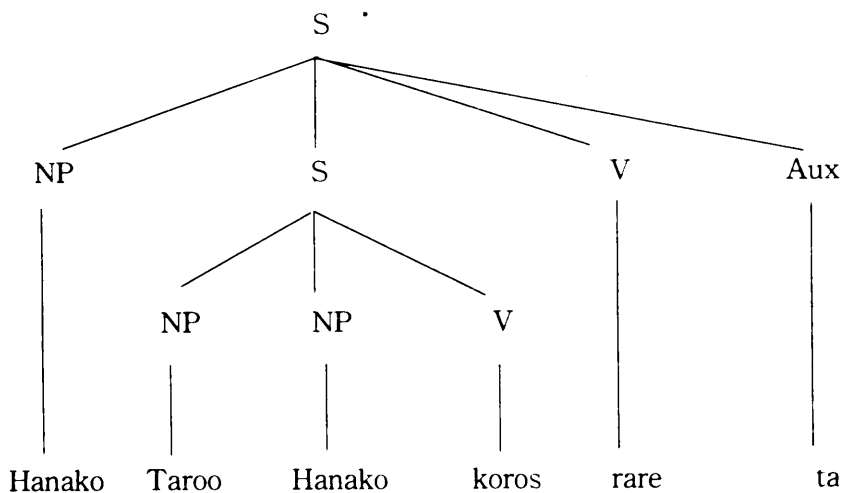
c. 太郎が 花子に 手紙を 読まれた。

Taroo-ga hanako-ni tegami-o yom-are-ta.

타로가 하나꼬에게 편지를 읽는 것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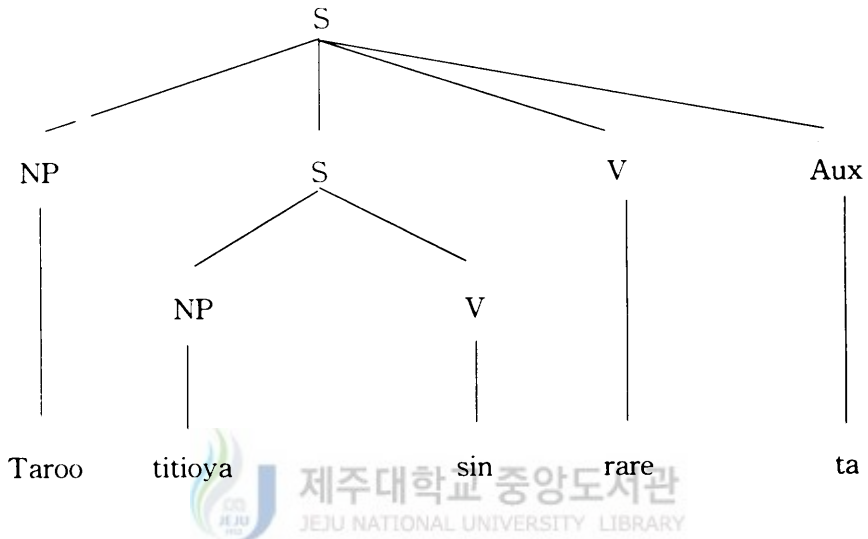
(16a)는 타동사의 직접수동문이고, (16b)는 자동사의 간접수동문, (16c)는 타동사의 간접수동문이다. 이 수동문들에 대해 Uniform Theory가 가정하는 D-구조는 다음과 같다.

(17) a. (16a의 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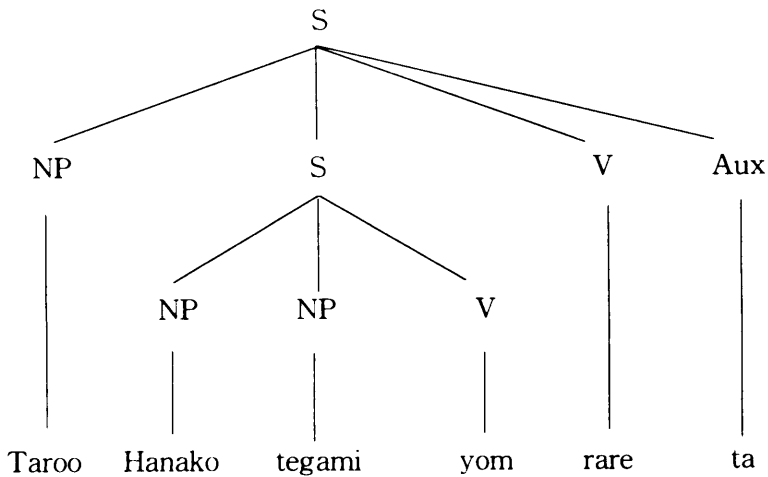
(17a)는 타동사를 포함하는 직접수동문 (16a)의 D-구조로, 수동화가 되면서 내포문의 목적어는 주문주어와의 일치 하에 삭제된다.

b. (16b의 예문)



(17b)는 (16b)의 D-구조이며 자동사를 포함하는 내포문 구조를 가진다.

c. (16c의 예문)



(17c)는 타동사의 간접수동문 (16c)의 D-구조이며, 타동사를 포함하는 내포문 구조를 가지는데 (17a)의 직접수동문과는 달리 다른 NP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3.2.2 Nonuniform Theory

Nonuniform Theory란 직접수동문은 초기분석 (15)와 같이 영어수동문과 마찬가지로, 내포문을 설정하지 않은 채, 이동변형에 의해 파생시키고, 간접수동문은 내포문을 가지는 구조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하는 입장이다. Kuno (1973:300-302, 1977:193)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18) D-구조 太郎が 花子を 殺した。

Taroo-ga Hanako-o korosi-ta.

타로가 하나꼬를 살해했다.

S-구조 花子が 太郎に 殺された。

Hanako-ga Taroo-ni koros-are-ta.

하나꼬가 타로에게 살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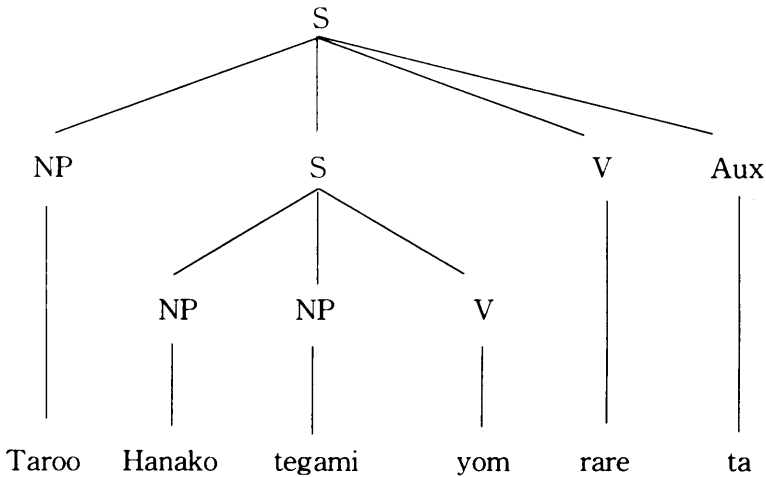
(18)의 직접수동문은 능동문인 D-구조에서 이동변형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간접수동문은 (19)의 D-구조와 같이 문 안에 또 하나의 내포문을 포함하는 구조로부터 파생된다고 가정한다.

(19) S-구조 太郎が 花子に 手紙を 読まれた。

Taroo-ga Hanako-ni tegami-o yom-are-ta.

타로가 하나꼬에게 편지를 읽는 것을 당했다.

D-구조



Nonuniform Theory가 수동문에 두 개의 다른 D-구조를 가정하는 최대의 근거는, Uniform Theory의 입장에서는 예컨대 (21), (23)과 같은 직접·간접수동문에 나타나는 zibun의 지시적 애매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데 있다. 직접수동문에 있어서의 zibun은 파생주어만을 선행사로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간접수동문에서의 zibun은 여분의 NP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시적으로 애매하게 되는 것이다. Nonuniform Theory를 지지하는 입장인 Kuno(1977:190-194)는, 일본어의 단문 중에 나타나는 재귀대명사 zibun의 선행사는 그 문의 주어이어야 하며 지시적으로 애매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간접수동문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Kuno 1973:300-302, 1977:192-193).

(20) 太郎は 次郎に 自分に ついて 話した。

Taroo_i-wa Ziroo_j-ni zibun_i-ni tuite hanasi-ta.

타로는 지로에게 자신에 대해 얘기했다.

(20)과 같은 단문에서 zibun은 애매하지 않게 문 주어 Taroo를 지시하고 있다.

(21) 花子_iは 太郎_jに 自分_iの 家で 殺された。

Hanako_i-wa Taroo_j-ni zibun_i-no uti-de koros-are-ta.

하나꼬는 타로에게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했다.

(21)과 같은 직접수동문에서도 zibun은 문 주어 Hanako를 지시하고 Taroo를 지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재귀대명사 zibun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주어를 가지는 복문²⁾에서 애매해질 수 있다.

(22) 太郎_iは 花子_jが 自分_{ij}の 写真を 次郎_iに 見せるのを 見た。

Taroo_i-wa Hanako_j-ga zibun_{ij}-no syasin-o Ziroo-ni miseru no-o mita.

타로는 하나꼬가 자신의 사진을 지로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23) ジョン_iは メアリー_jに 自分_{ij}の 家族の 話ばかり された。

John_i-wa Mary_j-ni zibun_{ij}-no kazoku-no hanasi-bakari sareta.

존은 메리에게 자신의 가족얘기만 하는 것을 들었다.

(22), (23)과 같은 내포문을 포함하는 복문에서 zibun은 Taroo와 Hanako, John과 Mary의 해석사이에서 애매하다. 따라서 (21)의 직접수동문은 능동문으로부터 파생되고 (23)의 간접수동문은 내포문을 포함하는 복문구조인 D-구조로부터 파생된다고 결론을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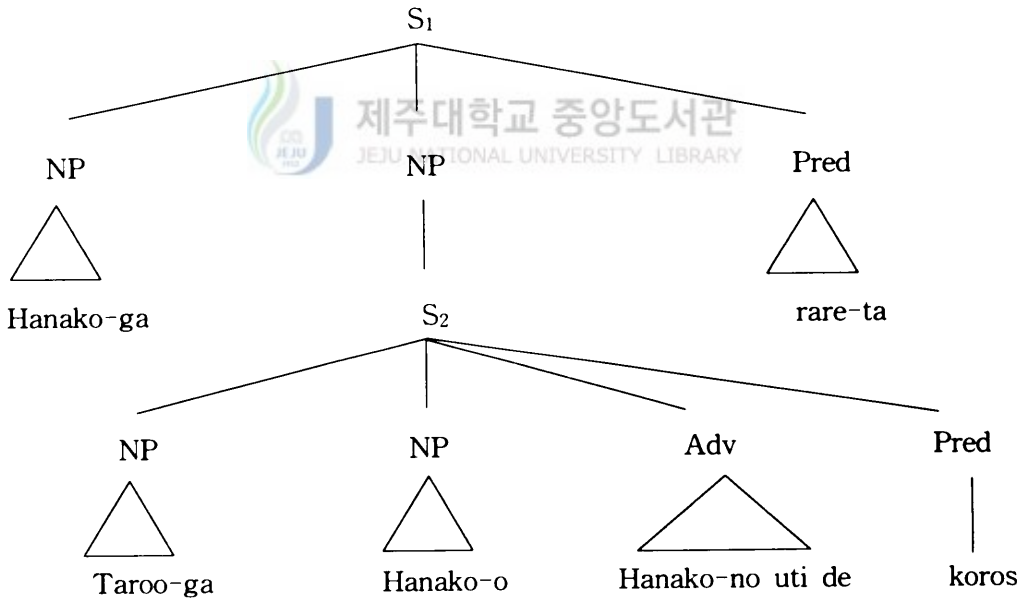
2) 여기서의 복문이란 내포문을 가지는 구조를 말하며, 내포문 주어와 주문 주어의 두 가지를 지낸다.

3.2.3 Howard의 이론

Howard는 Uniform Theory의 지지자로서, zibun의 해석의 애매성에 대해 또 다른 분석을 제안하여 직접수동 역시 내포문 구조를 가지는 D-구조로부터 파생된다고 논하고 있다(Howard, I. & A.M.N. Howard 1976). 직접수동문의 D-구조는 다음과 같다.

- (24) a. 花子_i가 太郎に 自分_i의 家で 殺された。
 Hanako_i-ga Taroo-ni zibun_i-no uti-de koros-are-ta.
 하나꼬가 타로에게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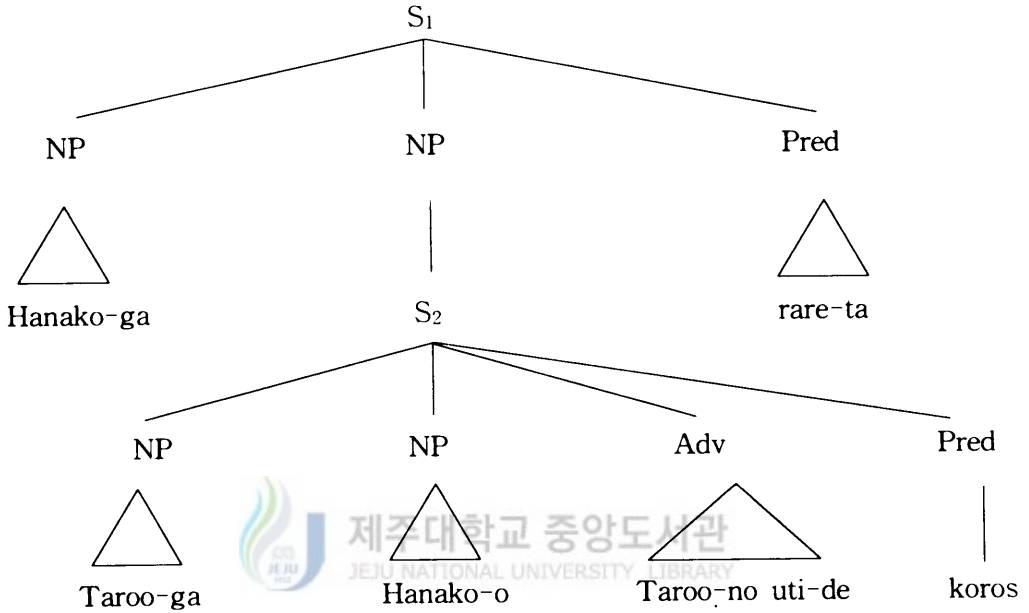
b. D-구조



Uniform Theory는 기저문에 내포문 구조를 가정함으로써 파생과정에서 두 개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첫째 사이클(S₂)에서 재귀화는 Hanako가 문의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고, 두 번째 사이클(S₁)에서 동일명사구 삭제와 함께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기저문의 내포문이 (24)의 Hanako-no uti de

대신에 (25)와 같이 Taroo-no uti-de로 된다면 하나의 문제가 있게 된다.

(25)



곧, S₂에서 선행사 Taroo에 의해서 Taroo-no uti-de의 Taroo가 zibun으로 재귀화 되면 다음과 같은 비문이 발생하게 된다.

(26) *花子_iは 太郎_jに 自分_jの 家で 殺された。

Hanako_i-wa Taroo_j-ni zibun_j-no uti-de koros-are-ta.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zibun이 내포문 주어를 동일지시하는 문의 파생을 어떻게 저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재귀화가 첫째(S₂) 사이클에서는 Taroo에 적용되고 둘째 사이클(S₁)에서는 Hanako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문이 파생한다.

(27) 花子; [太郎; 自分; 自分; の 家で 殺] された。

Hanako; [Taroo; zibun; zibun; no uti-de koros] ar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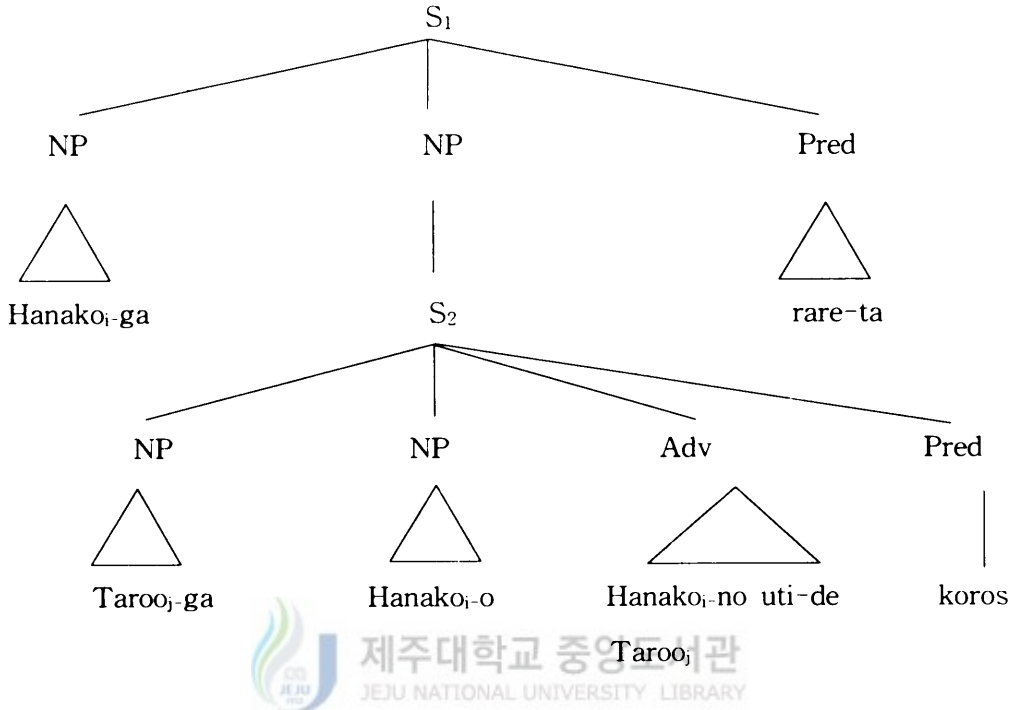
이 구조는 동일지시하지 않는 zibun의 두 가지 예를 포함하고 있는데, Howard는 이들 두 재귀사의 비동일지시성(noncoreferentiality)이 (26)의 비문법성에 책임이 있다고 하여, 내포문의 명사구가 삭제(동일명사구 삭제)되기 전에 재귀화를 겪는다고 한다(Howard, I. & A.M.N. Howard 1976). 그래서, 그 결과적 구조가 지시대상이 다른 zibun의 예를 수반한다면 그 문은 다음의 재귀사 동일지시 제약(RCC)에 의해 버려지게 된다.

(28) 재귀사동일지시제약(RCC) Two instances of the reflexive pronoun zibun commanded by the some pair of possible antecedents must be coreferential. If they are not, the sentence is marked as ungrammatical.(몇 개의 가능한 선행사에 의해 통어되는 재귀대명사 zibun이 있게 되는 경우는 동일지시되는 것이라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문은 비문법적인 것이 된다.

(Howard, I. & A.M.N. Howard 1976)

다음 (29)에서 즉, 내포문의 Hanako no uti de 중에서 Hanako를 Taroo로 바꾸면, S₂사이클에서는 내포문 주어 Taroo에 의해 그것이 동일지시되고 재귀화되며, 또 S₁사이클에서는 모문의 Hanako에 의해 내포문의 Hanako가 동일지시될 수 있어 zibun_i와 zibun_j가 생기고 양자 사이에 동일지시물을 가지지않으므로 RCC에 의해 이 문은 배제되게 되는 것이다.

(29)



그러나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30) 花子_i가 自分_iは 昔 いつも 自分_j의 写真을 持ちあるいて いた 男_j을 愛した こと がある と言った。

Hanako_i-ga zibun_i-wa mukasi itumo zibun_j-no syasin-o motiarui-te i-ta otoko-o aisi-ta koto-ga aru-to it-ta.

하나꼬가 자신은 옛날 항상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다녔던 남자를 사랑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30)에서 두 개의 zibun은 동일물을 지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애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문이 되고 있다. (30) 외에도 RCC에는 예외가 많고 해서 이를 파생과정에서의 제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각상의 책략³⁾으로 보기

3) 'perceptual strategies' 發話法을 이해하는데 쓰이는 책략(김공철 1989 : 263~274 참조).

도 한다. 즉, S-구조상의 같은 절 중에 zibun이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 이하의 zibun에 최초의 zibun에 준 것과 동일지시의 해석을 준다고 하는 지각상의 책략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초기분석에서 Uniform Theory와 Nonuniform Theory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어 수동문의 분석을 살펴 왔지만, 일본어는 직접·간접수동문의 경우도 동일한 수동형태소 rare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Uniform Theory처럼 직접·간접수동문이 동일한 기저에서 파생된다고 하는 가정이 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Nonuniform Theory의 경우도 두 수동문의 구조를 가정함으로써 각기 다른 파생을 적절히 설명하려하고 있기는 하나 역시 재귀대명사 zibun의 지시적 애매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6, 70년대의 이론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변형규칙과 제약을 적용하고 있고 조작도 복잡하여, 수동문의 파생과정에 대해 원리적인 설명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GB이론에 이르러서는, 통사적 현상의 설명에 있어 많은 개별적인 변형규칙을 α -이동 하나로 통합하고, 여러 가지 원리의 상관관계로 설명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동문의 분석에 있어서도 격이론, θ 이론 등의 여러 원리의 상관으로부터 설명하려고 한다.

IV. 일본어 수동문에 대한 GB이론적 접근

4.1 기본적 개념

수동문에 대한 GB이론적 분석을 하기에 앞서 그 분석의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술어의 개념들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한다. 먼저 격흡수가설에 대해 언급한다면, 격흡수가설이란, 타동사에는 목적어에 격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타동사에 수동형태소인 *-en*(일본어의 경우 *rare*)이 부가되면, 목적어에 격을 부여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주어 θ -역할(θ -role)도 흡수한다(Chomsky 1981:124)고 하는 가설이다. 이 경우 수동형태소가 격을 흡수한다고 한다.

- (31) a. Mary wrote the letter.
b. [e] was written the letter by Mary.

동사 *write*는 (31a)에서 *letter*에 목적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수동형태소 *-en*이 부가되어 *written*이 됨으로 해서 *the letter*에 대한 목적격을 흡수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격이론에 대해 언급한다면, 격이론에는 ‘모든 음형을 가진 NP는 격을 가져야 한다’는 격필터(Case filter)의 개념(Chomsky 1981:49)이 있는데, (31)의 예문에서 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the letter*는 격을 얻기 위해 공범주 자리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θ -이론은 θ -역할(θ -role)의 부여와 인가를 다루는데, θ -역할이란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 사건, 상태 등에 관여하는 논항 NP가 담당하는 의미기능을 말한다(김공철 1995:26, 安藤 外 1993:279). 예를 들면 (32a)에서 ‘太郎’는 동작주(Agent), ‘花子’는 주제(Theme)의 θ -역할을 지닌다. θ -역할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의 논항은 하나의 θ -역할을 지니며, 하나의 θ -역할은 유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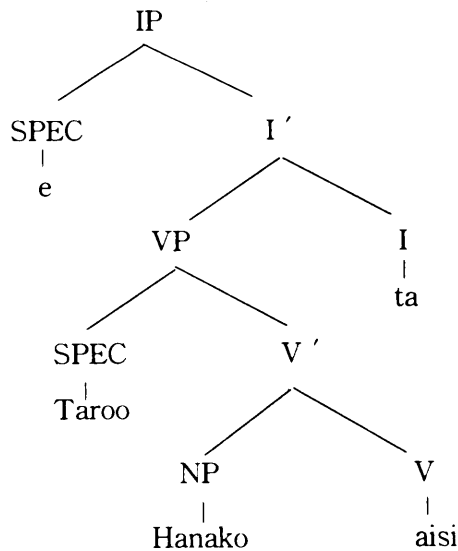
논항에 부여된다'고 하는 θ -기준(θ -criterion)(Chomsky 1981:36)인데, 예컨대 (32b)에서는 주제의 θ -역할이 '花子を', '次郎を' 두 개가 되고 있어 θ -기준에 의해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 (32) a. 太郎が花子を殴った。
 b. * 太郎が花子を次郎を殴った。

논항에 대한 θ -역할 부여는 D-구조에서 행해진다. 그런데 θ -역할 부여는 하나의 술어를 중심으로 부여되는 점에서 '내부적'이므로 주어가 D-구조에서 VP내부에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VP내부주어가설이란 바로 주어가 D-구조에서 VP 내부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IP 지정부에 있게되는 주어가 D-구조에서는 VP 내부에 있고 그것이 파생의 단계에서 IP 지정부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이다(Morikawa 1993:9, 양동휘 1994:73, 김공철 1995:109, 김미향 1997:11-13).

(33)



즉, VP 내의 SPEC 자리에 있던 Taroo가 파생의 단계에서 IP의 SPEC자리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동사이동을 살펴 보겠는데 동사이동이란, 보문 VP의 동사(Head)를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술어(바로 위의 Head)로 상승, 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Head 이동' 이라든가 '제로범주이동'으로 불리는 α -이동의 일종(Chomsky 1986:72, Hasegawa 1990 참조)이다. 예를 들어 동사와 시제사가 결합하는 메커니즘을 보겠다.

(34) D-구조 a. ...[I' [VP... [V table]] [I -ta]].

S-구조 b. ...[I' [VP... e_i] [V_{-I} table_i -ta]].

D-구조에서 동사는 어간만이 V⁰ 위치에 발생하고, 시제사는 INFL에 관할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동사는 최종적으로 시제의 지정을 가져야 하므로 시제사로 이동하여 결합하여야 하는 것이다(三原 1994:69-70 참조).

수동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이동하여 rare와 결합하는 구조를 볼 수 있다.

(35) D-구조 [IP e [I' [VP₁ e [VP₂ 先生 太郎 叱] られ] た]]

[IP e [I' [VP₁ e [VP₂ sensei Taroo sikaru] rare] ta]]

S-구조 [IP 太郎_j-가 [I' [VP₁ t_j [VP₂ 先生-に t_j t_i] 叱_i-られ] た]]

[IP Taroo_j-ga [I' [VP₁ t_j [VP₂ sensei-ni t_j t_i] sikaru_i-rare] ta]]

이 경우는 VP내부주어가설을 가정하므로, D-구조에서 주어는 VP₂ 안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동사 sikaru가 이동하여 rare와 결합하게 되면 격부여 능력이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Taroo는 격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격을 받기 위해 IP의 지정부 자리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Hasegawa 1990).

4.2 격흡수가설에 의한 분석

과거의 생성문법에서는 수동태가 능동태로부터 변형규칙에 의해 파생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GB이론에서는 이러한 수동태와 능동태문장은 애초부터 별개의 문장으로 본다.

- (36) a. John was [killed]
b. D-구조 [NP e] INFL be [killed John]
c. S-구조 John INFL be [killed t]

과거의 문법에서는 (36)과 같은 통사적 수동이 능동문 'Someone killed John.' 으로부터 (13)과 같은 수동변형을 거쳐 도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13)의 조작들은 실제로는 수동구문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한학성 1995:68-74 참조), 앞서 지적됐던 변형규칙들의 문제점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더 원리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GB이론에서는 능동문과 수동문은 애초부터 서로 별개의 구조의 문으로 간주하고, 수동문의 D-구조의 설정과 생성과정을 설명하게 된다. 그 중의 하나의 가설이 격흡수 가설이다 (Chomsky 1981:124).

(36b)의 D-구조에서 수동형태소 -en은 주어의 θ -역할을 흡수하고 목적격 자질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어의 자리는 비어 있으며, 목적어는 격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John은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격을 받지 못하여 격필터에 저촉되기 때문에, 격부여자인 INFL로부터 격을 받을 수 있는 빈자리 [NP e]자리로 이동하여 주격을 받는다.

다음은 일본어의 수동문이다.

- (37) 太郎が 花子に 捨てられた。
Taroo-ga Hanako-ni sute-rare-ta.
타로가 하나꼬에게 버림받았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도, 초기의 (13)과 같은 변형규칙에 의해 능동문에서 수동문이 파생된다고 보았으나 그 규칙의 수가 많고 조작이 복잡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능동문에서 수동화 되면, 경우에 따라서 의미적으로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38) 1a. 親は 子供を 日本に 残した。

Oya-wa kodomo-o Nihon-ni nokosi-ta.

b. 子供は 親に 日本に 残された。

Kodomo-wa oya-ni Nihon-ni nokos-are-ta.

2a. 部長は 佐藤を 人事課に 回した。

Butyoo-wa Satoo-o zinzika-ni mawasi-ta.

b. 佐藤は 部長に 人事課に 回された。

Satoo-wa butyoo-ni zinzika-ni mawas-are-ta.

3a. 佐藤先生は ハワイ大学を 辞めた。

Satoo-sensei-wa Hawaidaigaku-o yame-ta.

b. ハワイ大学は 佐藤先生に 辞められた。

Hawaidaigaku-wa Satoo-sensei-ni yame-rare-ta.

예를 들면 (38)의 1b, 2b, 3b에서는 피해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 같다(Howard, I. & A.M.N. Howard 1976). 그래서 애초부터 수동문은 D-구조의 단계에서부터 능동문과는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39)가 (37)의 D-구조이다.

(39) [IP [NP e] [I' [VP 花子 [V' 太郎 [V 捨てられ]]] た]].

[IP [NP e] [I' [VP Hanako [V' Taroo [V suterare]]] ta]].

(39)에서 수동형태소 rare는 주어의 θ -역할과 목적격자질을 흡수하기 때문에 IP의 지정부는 공범주 [e]로서 비어 있고, 후에 수동문의 파생주어가 되는 Taroo는 V' 내의 직접목적어 위치에 있다. 일본어에서도 수동형태소 rare가 목적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39)에서 목적어 위치에 있는 Taroo는, 그 위치에서 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Taroo는 격필터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INFL로부터 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 빈자리 [_{NP} e]로 이동하여 주격을 받는다(三原 1994:35-37 참조).

(39)의 S-구조표시를 (40)으로 나타낸다.

(40) [_{IP} 太郎_i가 [_{I'} [_{VP} 花子_i에 [_{V'} t_i [_V 捨てられ]]]]た]]
 [_{IP} Taroo_i-ga [_{I'} [_{VP} Hanako-ni [_{V'} t_i [_V suterare]]]]ta]]

그런데 일본어에 (41a)와 같은 자동사의 간접수동문과 (41b)와 같은 타동사의 간접수동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41) a. 太郎が 花子に 夜 おそく アパートに 来られた。
 Taroo-ga Hanako-ni yoru osoku apaato-ni ko-rare-ta.
 타로가 하나코에게 밤 늦게 아파트에 오는 것을 당했다.

b. 僕は 友達に 弟を 殴られた。
 Boku-wa tomodati-ni ootoo-o nagur-are-ta.
 나는 친구에게 동생이 매맞는 것을 당했다.

그런데 원래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의 간접수동문이나 목적격이 흡수되지 않고 있는 타동사의 간접수동문은 격흡수분석만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GB이론의 틀 안에서 일본어와 같은 개별언어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수동문을 분석하기 위한 다른 시도가 필요하다.

4.3 θ -role 흡수가설에 의한 분석

4.2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수동형태소의 특징은 1)목적어의 구조격을 흡수하고 2)또한, 주어의 θ -역할(θ -role)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 역할 중에서 1)보다 2)가 기본적으로 본 것이 θ -role흡수가설이다. 그런데 Chomsky(1981, 1986)는 수동형태소의 본질적 특징을 목적어의 구조격의 흡수라고 하는데 비해, 中村(1991)는 주어의 θ -역할의 흡수가 기본적인 역할이며, 격의 흡수는 각 언어마다 달라 Parameter화되어 있다고 한다(中村 1991:55).

일본어에서는 (41a)와 같이 자동사에서 형성되는 간접수동문이 가능하며, 자동사에는 원래 목적격을 부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격흡수라는 과정이 성립될 수 없다. 게다가 (41b)의 타동사의 간접수동문에서는 ootoo에 목적격이 주어지고 있어 격이 흡수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격의 흡수를 본질로 보는 격흡수가설로서는 이들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中村은 격흡수는 부차적인 것이며, 수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언어에 따라서는 격흡수에 대하여 (42)와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한다(中村 1991:55).

(42) 격흡수

- a. 수의적으로 격을 흡수한다.
- b. 가능할 때는, 언제라도 격을 흡수한다.
- c. 의무적으로 격을 흡수한다.

즉, (42a)에서 수동문에서 격이 수의적으로 흡수된다고 하면 (41a)와 같은 1) 자동사의 수동문도 가능하고, (41b)와 같은 2)타동사로 목적어가 구조격을 갖는 수동문도 가능하고, 3) 목적어가 주어위치에 이동한 직접수동문도 가능하다.

먼저 자동사의 간접수동문을 보면, (42a)에 의해 흡수할 격이 없는 자동사도 수동태가 가능하다.

(43) a. 犬が 吠えた。

Inu-ga hoe-ta.

개가 짖었다.

b. 太郎が 犬に 吠えられた。

Taroo-ga inu-ni hoe-rare-ta.

타로가 개에게 짖음을 당했다.

(43b)에서 hoeru의 주어의 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inu가 흡수(내재화)되어 주어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 자리를 메꾸는 Taroo는 다주어 구문에서의 주어의 하나로 가정한다. (44)는 (43b)의 D-구조이다.

(44) D-구조 [s 太郎 [s e [vp 犬 [v 吠えられた]]]
[s Taroo [s e [vp inu [v hoe-rare-ta]]]]

이 구문에서 다주어의 하나가 있게 되는 것은 수동술어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으면 완전한 문의 해석을 이룰 수가 없다(中村 1991:56).

이번에는 타동사의 간접수동문을 살펴보자면, (42a)에 의해 목적어 구조격을 가지는, 곧 격이 흡수되고 있지 않은 (45)와 같은 타동사의 간접수동문이 가능하게 된다.

(45) 太郎が 次郎に 子供を 叩かれた。

Taroo-ga Ziroom-ni kodomo-o tatak-are-ta.

타로가 지로에게 아이를 때리는 것을 당했다.

(45)의 D-구조를 (46)으로 본다면 본질적 θ -역할흡수에 의하여 본래의 주어 Ziroom은 흡수되고 있다.

(46) D-구조 [s 太郎 [s e [vp 次郎 [v' 子供 叩かれた]]]]

[s Taroo [s e [vp Ziroo [v' kodomo tatak-are-ta]]]]

(46)에서 보이는 주어 Taroo도 수동술어의 서술대상인 다주어의 하나라고 본다. 끝으로, (47)의 직접수동문의 경우는 (48)과 같이 격흡수가설의 경우와 같은 파생을 보인다.

(47) 太郎が 母に 褒められた。

Taroo-ga haha-ni home-rare-ta.

타로가 어머니에게 칭찬 받았다.

(48) a. D-구조 [s e [vp 母 [v' 太郎 褒められた]]]

[s e [vp haha [v' Taroo home-rare-ta]]]

b. S-구조 [s 太郎が [vp 母に [v' 褒められた]]]

[s Taroo-ga [vp haha-ni [v' home-rare-ta]]]

수동형태소 rare가 주어의 θ -역할과 격을 흡수하는 가설에 서면 (48a)의 구조를 얻는다. 그리고, 본래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NP가 격을 얻기 위해 주어위치로 이동하여 (48b)를 얻는다. 이와 같이 일본어의 경우는 (43), (45)처럼 격을 흡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47)처럼 격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다. 곧, 수의적으로 격을 흡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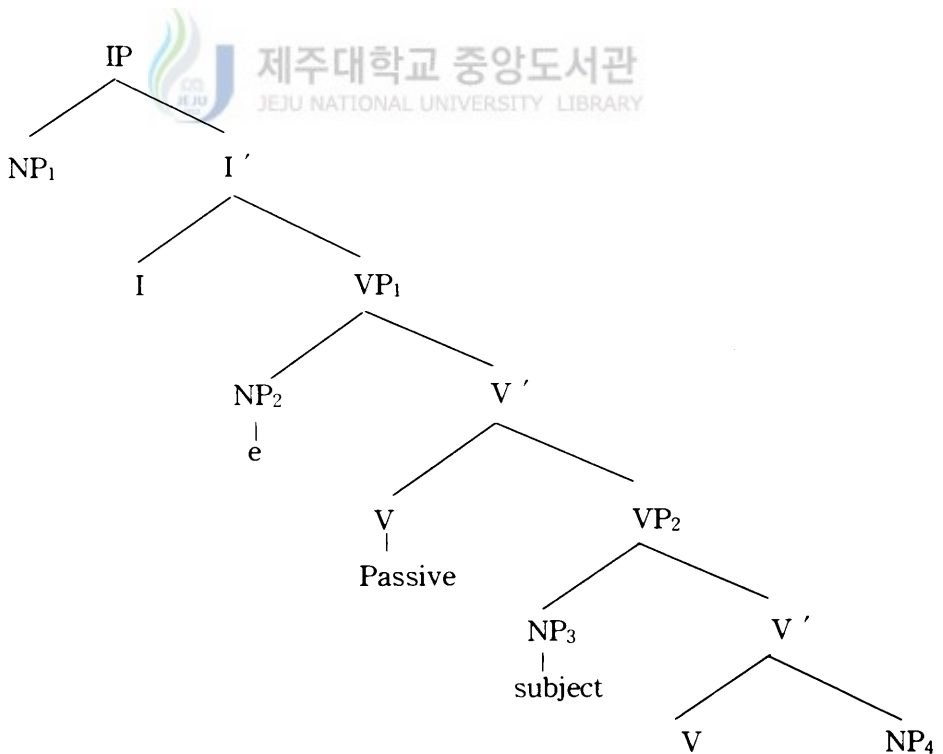
그런데 이상의 中村의 분석에서는 수동형태소 rare가 직접·간접수동문에서 쓰이고 있음에도 별도의 D-구조가 설정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rare가 직접·간접수동문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상 통일적인 D-구조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에서 다주어 구문의 가정의 경우도 다주어가 생성되는 이유나 메커니즘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동형태소 범주에 대한 규정과 그 통사적 기능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직접·간접수동문의 통일적인 D-구조 설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4.4 동사이동분석

Hasegawa(1990)는 동사이동 즉 주요부이동에 의해 수동문의 현상을 통일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4.1의 기본적 개념에서 소개된 이 분석의 특징은 VP 내부주어가설에 입각하고, 그 한 단계 위에 수동술어구범주인 VP₁을 설정하고 있는 데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해서 먼저 영어수동문의 경우를 본다면 (49)의 D-구조를 가정할 수 있다.

(49)



(49)에서 VP₁은 수동형태소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VP₂의 내부에서 주어가 생성되고 수동의 술어는 VP₁ 안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한다. 문제는 영어 수동 형태소 -en의 어휘범주인데, 형용사적 [+N]4)범주이기 때문에 격이 필요하고 그래서 격부여 능력이 있는 동사와 결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타동사에 한정된다(Hasegawa 1990). 따라서 VP₂ 내의 동사 V가 의무적으로 이동하여 수동형태소 -en(Passive) V와 결합을 하게 된다. 그 결합 과정에서 VP₂ 내의 목적어 NP₄가 격을 받기 위해 IP의 지정부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구조를 바탕으로 영어수동문은 (50)의 D-구조로부터 (51a, b)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50) D-구조 [_{IP} e [_{I'} was [_{VP} e [_{v-en}] [_{VP} John break the window]]]]

(51) a. [_{IP} e [_{I'} was [_{VP} e [_v break_i -en] [_{VP} John t_i the window]]]]

b. [_{IP} the window_j [_{I'} was [_{VP} t_j [_v break_i -en] [_{VP} (by) John t_i t_j]]]]

⇒The window was broken by Jo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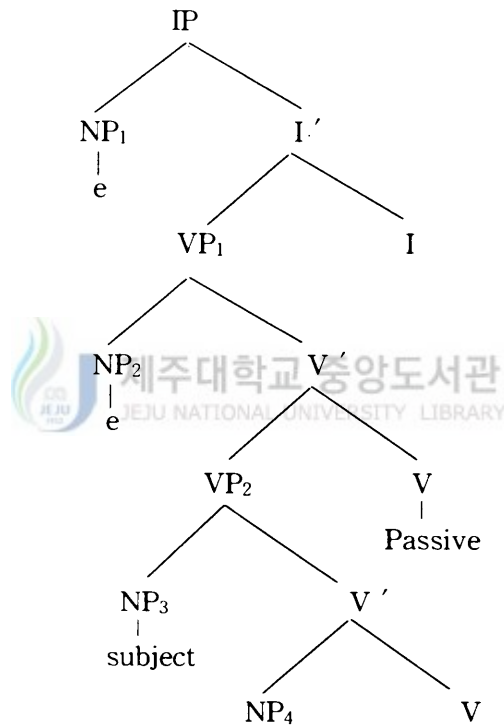
다시 말하면, 영어 수동문의 D-구조 (50)에서 주어는 VP₂ 내에 있고 IP의 지정부 자리는 비어 있다. 그런데 VP₁의 주요부인 수동형태소 -en은 어휘범주가 [+N]범주이기 때문에 격이 필요하다. 그런데 (51a)에서 VP₂ 내의 주요부 V만이 격을 줄 수 있는 타동사이다. 그래서, 타동사 break가 Passive V자리로 이동, -en과 결합하게 된다. 그러면 타동사의 목적어인 the window는 격부여자가 없으므로 (51b)에서와 같이 INFL로부터 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즉, 비어 있는 주어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John은 전치사 by로부터 격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어의 경우는 어떻게 파생되는지 보기로 하겠다. (49)와 같이

4) UG에서는 범주자질 [$\pm N$]과 [$\pm V$]의 두 가치를 가장 원칙적인 것으로 삼는다 (김공철 1995: 74참조).

VP내부주어가설에 입각한 것은 영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지만 수동형태소 rare의 어휘범주규정이 다르다. 일본어 수동형태소 rare의 어휘범주는 [-N]으로서 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Hasegawa 1990). 따라서 rare의 보문의 동사는 격 부여 능력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바꿔 말해서 타동사여도 괜찮고 자동사여도 괜찮다.

(52)



(52)에서 V의 자리가 (49)와 대비해서 정반대인 것은 주요부의 위치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도 VP₂ 내에 주어(Subject)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단계 위인 수동술어구 VP₁ 내에 수동형태소 V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VP₂ 내의 동사 V가 이동, 수동형태소 Passive V와 결합하게 되면 VP₂ 내의 목적어 NP가 격을 받기 위해 IP의 지정부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이 바로 일본어의 직접 수동문의 파생과정이 된다.

이를 기본으로 우선 일본어 직접수동문의 파생과정을 보기로 하겠다.

(53) D-구조 [IP e [I' [VP₁ e [VP₂ 校長 生徒 呼] られ] た]]
[IP e [I' [VP₁ e [VP₂ kootyoo seito yob] rare] ta]]

(54) a. [IP e [I' [VP₁ e [VP₂ 校長 生徒 t_i] 呼_i-られ] た]]
[IP e [I' [VP₁ e [VP₂ kootyoo seito t_i] yob_i-rare] ta]]

b. [IP 生徒_j-が [I' [VP₁ t_j [VP₂ 校長-に t_j t_i] 呼_i-られ] た]]
[IP seito_j-ga [I' [VP₁ t_j [VP₂ kootyoo-ni t_j t_i] yob_i-rare] ta]]

⇒ 生徒が 校長に 呼ばれた。

Seito-ga kootyoo-ni yob-are-ta.

학생이 교장에게 불리웠다.



(53)에서 주어는 VP₂ 내에 있고 IP의 지정부 자리는 비어 있다. (54a)에서 VP₂의 동사 yobu가 이동하여 rare와 결합함으로써 VP₂ 내에는 seito에 격을 줄 수 있는 격부여자가 없다. 그래서 seito는 격을 받기 위해 (54b)에서와 같이 IP의 지정부 자리로 옮겨가 주격을 받는다. VP₂ 내의 주어도 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작주를 나타내는 후치사 ni로부터 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 VP₁의 주요부인 수동형태소 rare는 동사적 [-N] 범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VP₂ 내의 V가 반드시 타동사일 필요는 없다. 즉, 자동사라도 수동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영어의 경우는, -en의 격의 필요로 인해서 타동사와 결합해야 하는 통사적 이유 때문에 동사이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반드시 S-구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어의 rare는 그것에 대한 동사이동이 반드시 격의 성격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사부문이 아닌 음운부문⁵⁾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Hasegawa 1990). (54)는 통사부문에서 동사이동을 적용시킨 경우이고, 만일 (53)의 D-구

조문에서 통사적인 동사이동을 적용시키지 않고 음운부문에서만 적용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존경문을 얻게 된다.

- (55) [IP 校長_i-가 [I' [VP_i t_i [VP_i t_i 生徒-을 呼-] られ] た]]
 [IP kootyoo_i-ga [I' [VP_i t_i [VP_i t_i seito-o yob-] rare] ta]]
 ⇒ 校長が 生徒を 呼ばれた。
 Kootyoo-ga seito-o yob-are-ta.
 교장이 학생을 부르셨다.

즉, VP₂의 동사 yobu는 본 위치에서 seito에 목적격을 주고, 주어인 kootyoo는 비어있는 IP의 지정부로 이동하여 주격을 받는다.

다음은 간접수동문의 파생을 보기로 하겠다. 수동형태소 rare의 동사적 [-N]의 어휘범주특성상 자동사적인 rare와 타동사적인 rare로 나타날 수 있다 (Hasegawa 1990). 즉, (53)은 수동술어가 주어 θ-역할이 없이 VP₂만을 논항으로 취하는 자동사적인 rare이며, 다음의 (56)의 수동술어는 VP₂ 논항 외에 VP₁의 SPEC 자리에 주어 θ-역할이 있어 타동사적인 rare이다.

- (56) a. D-구조 [IP e [I' [VP_i 太郎 [VP_i 花子 ケーキ 食べ] られ] た]]
 [IP e [I' [VP_i Taroo [VP_i Hanako keeki tabe] rare] ta]]
 b. D-구조 [IP e [I' [VP_i 太郎 [VP_i 妹 泣] られ] た]]
 [IP e [I' [VP_i Taroo [VP_i imooto nak] rare] ta]]

(56a)는 VP₁의 SPEC 자리에 주어 Taroo와 함께 논항 VP₂에 타동사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56b)는 VP₁의 SPEC 자리에 주어 Taroo와 함께 논항 VP₂에

5) 이에 대하여는 김공철(1996:12) 참조

자동사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각각의 파생과정을 알아보겠는데, 먼저 (56a)의 타동사의 간접수동문의 경우는 (57)과 같다.

- (57) [IP 太郎_i-가 [I' [VP_i t_i [VP_i 花子₋-に ケーキ-を 食べ-] られ] た]]
 [IP Taroo_i-ga [I' [VP_i t_i [VP_i Hanako-ni keeki-o tabe-] rare] ta]]
 ⇒ 太郎が 花子に ケーキ-を 食べられた。
 Taroo-ga Hanako-ni keeki-o tabe-rare-ta.
 타로가 하나꼬에게 케이크 먹는 것을 당했다.

(57a)의 타동사의 간접수동문의 경우는 동사이동을 통사부문에서 적용시키지 않고 음운부문에서 적용시킨 경우이다. 그 경우 VP₁ 내의 주어 Taroo만이 IP의 지정부 위치로 이동한다. 만일 통사부문에서 적용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은 비문이 되어 버린다.



- (58) * [IP 太郎_j-가 [I' [VP_i t_j [VP_i 花子₋-に ケーキ t_i] 食べ-] られ] た]]
 [IP Taroo_j-ga [I' [VP_i t_j [VP_i Hanako-ni keeki t_i] tabe-] rare] ta]]

곧, VP₂의 동사 taberu가 rare의 위치로 이동하므로 본래의 목적어 keeki에 격을 줄 수가 없다. 따라서 통사부문에서는 동사이동을 적용시키게 되면 (58)과 같은 비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자동사의 간접수동문 (56)의 파생과정이다.

- (59) a [IP e [I' [VP_i 太郎 [VP_i 妹 t_i] 泣-] られ] た]]
 [IP e [I' [VP_i Taroo [VP_i imooto t_i] nak-] rare] ta]]
 b. [IP 太郎_j-가 [I' [VP_i t_j [VP_i 妹-에 t_i] 泣-] られ] た]]
 [IP Taroo_j-ga [I' [VP_i t_j [VP_i imooto-ni t_i] nak-] rare] ta]]

(60) [IP 太郎_i-が [I' [VP_i t_i [VP_i 妹_j-に 泣] られ] た]]

[IP Taroo_i-ga [I' [VP_i t_i [VP_i imooto-ni nak] rare] ta]]

⇒ 太郎が 妹に 泣かれた。

Taroo-ga imooto-ni nak-are-ta.

타로가 여동생에게 우는 것을 당했다.

(59-60)은 VP₂에 자동사를 포함하는 경우인데, (59a, b)처럼 동사이동을 통사 부문에 적용시키거나 (60)처럼 음운부문에 적용시키거나 생성되는 형태에는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 수동형태소의 범주적 특성에 입각하여 분석을 해온 바, 일본어의 여러 가지 수동문에 대한 본 논문의 3장과 4장에서의 분석에서 문제가 되었던 직접·간접수동문의 통일적인 D-구조설정의 문제라든지, 영어와는 달리 일본어에서 자동사의 수동문이나 타동사의 간접수동문이 생성되는 과정 등을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곧, VP내부주어가설에 입각하여 수동술어를 술어로 하는 동일한 D-구조를 설정하고, 수동술어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 범주의 특성에 의해 동사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적절히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분석의 잇점으로서도 영어 수동문이나 일본어 수동문도 본래 공통된 D-구조의 파생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 데 있다. 이것은 개별언어의 Parameter의 차이, 곧 수동술어범주의 Parameter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두 언어의 수동문의 파생과정과 수동형태가 달라짐을 뜻한다.

V. 맺는말

5.1 일본어에 직접수동문과 간접수동문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이다. 그런데 이들 두 수동 사이에 어떤 통사적인 관련이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연구방법으로는 해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생성문법적인 접근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시도되어 왔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생성문법적인 시각에서, 초기분석에서 GB이론까지 그 분석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GB이론 틀 안에서의 동사이동분석을 중심으로 두 수동의 파생과정이 명시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5.2 일본어의 직접수동문의 경우는 대응하는 능동문이 있고, 그 직접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상승하며, 본래의 주어는 조사 *ni*를 취하게 되고(*ni* phrase), 수동형 태소 *rare*가 동사의 어간에 접미된다. 그리고 타동사에서 형성된 간접수동문, 자동사에서 형성된 수동문의 형태는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다. 이 수동에서는 *ni* phrase가 반드시 나타나며, 직접수동문보다 하나 더 많은 NP를 포함하게 된다. 이 수동에 나타나는 의미는 '피해적'이다.

5.3 생성문법의 초기에는 능동문으로부터 (15)와 같은 변형규칙에 의해 수동문이 파생된다고 보았다.

1970년대는 Uniform Theory와 Nonuniform Theory가 대립하여 전자는 (17)과 같이 직접수동문과 간접수동문 모두에 동일한 구조, 내포문 구조를 가정하고, 후자는 직접수동문은 내포문을 설정하지 않은 채 능동문으로부터 수동변형에 의해 파생되고, 간접수동문은 내포문 구조로부터 파생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Nonuniform Theory가 직접·간접수동문에 다른 구조를 설정하는 이유는 *zibun*이 선행사를 지시하는 데 있어 직접수동문에서는 애매하지 않은데 간접수동문에서는 애매하다는 데 있다. 즉, 지시적으로 애매하지 않은 직접수동

문은 단문으로 보아 내포문을 가정하지 않고, 지시적으로 애매한 간접수동문은 복문으로 보아 내포문 구조를 가정한 것이다.

이에 Uniform Theory의 지지자인 Howard는 직접수동문에서의 *zibun*의 비애매성을 (28)의 재귀사동일지시제약(RCC)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5.4 GB이론에 이르러서는, 통사적 현상의 설명에 있어 많은 개별적인 변형규칙을 α -이동 하나로 통합하고, 여러 가지 원리의 상관관계로 설명하려 하는데, 수동문의 분석에 있어서도 격이론, θ -이론 등의 여러 원리의 상관으로부터 설명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VP내부주어가설, 격흡수가설, θ -role흡수가설 등에 입각하고 있으며, 능동문과 수동문은 D-구조의 단계에서부터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 중에 한 가지인 격흡수가설은, (39)와 (40)에서 수동형태소 *rare*는 목적격자질을 흡수하기 때문에 목적어 위치에 있는 NP는, 그 위치에서는 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격필터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INFL로부터 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 빈자리 [_{NP} e]로 이동하여 주격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영어수동문의 파생과정은 설명될 수 있으나, 자동사에서 수동문이 형성되거나 타동사에서 형성되어도 목적격이 흡수되지 않는 간접수동문이 나타나는 일본어에서는 그러한 수동문의 파생과정이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 中村(1991)의 θ -role흡수가설을 보게 되면 수동형태소의 기본적인 특징은 주어의 θ -역할의 흡수이며, 격의 흡수는 각 언어마다 Parameter화되어 있고, 일본어에서는 수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격의 흡수가 수의적이므로 흡수할 격이 없는 자동사의 수동문이 가능하고, 목적격이 흡수되고 있지 않은 타동사의 수동문도 가능하다. 이 때의 주어는 수동술어의 대상이 되는 다주어의 하나로 본다. 또한 직접수동의 파생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격이 흡수되는 격흡수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택한다. 그렇지만 이 분석에서는 수동형태소 *rare*가 직접·간접수동문에 쓰이고 있음에도 통일적인 D-구조가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다주어구문의 가정의 경우도 다주어가 생성되는 이유나 메커니즘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통일적으로 직접·간접수동문의 파생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Hasegawa의 이동분석을 들 수 있다. 필자도 일본어는 직접·간접수동의 경우도 동일한 수동형태소 rar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Uniform Theory와 같이 두 수동문이 동일한 기저에서 파생된다고 하는 가정이 보다 좋다는 입장이므로 Hasegawa의 어휘범주의 규정과 이동분석을 참조하고, VP₂ 밖에 수동술어구범주 VP₁을 가정한다.

1) (53)과 같은 직접수동문의 경우에서 VP₂ 내의 동사 V가 이동하여 VP₁ 내의 수동형태소 V와 결합하므로 VP₂ 내의 목적어 NP에 격을 줄 수가 없다. 따라서 목적어 NP가 격을 받기 위해 IP의 지정부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격을 받기 위한 이동은 통사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통사부문에서만 행해진다. 그 외 일본어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간접수동문의 경우는, 일본어의 수동형태소 rare의 범주의 특성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곧, 영어 수동형태소 -en이 [+N]인 것에 대해, 일본어의 수동형태소 rare는 [-N]범주이기 때문에 격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VP₂의 V자리에는 반드시 타동사가 오지 않아도 되며, 동사이동이 통사부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음운부문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2) (5a)의 타동사의 간접수동문의 경우는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사이동을 통사부문에 적용시키지 않고 음운부문에 적용시킨 것이며,

3) (56b)는 자동사의 간접수동문의 경우인데 VP₂에 자동사를 포함하고 있어 격부여와 상관이 없으므로 동사이동이 (59)와 같이 통사부문에 적용이 되든지, (60)과 같이 음운부문에 적용이 되든지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얻는다.

4) 이러한 음운부문에서의 적용이 직접수동문에서 있게 되면 rare형태의 존경문이 있게 된다.

이러한 1)~4)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수동문에 대한 D-구조의 설정문제라든지, 영어와는 달리 일본어에서 자동사의 수동문이나 타동사의 간접수동문이 생성되는 과정 등이 어느 정도 설명되리라 본다. 또한, 이 분석은 영어 수동문이나 일본어의 수동문도 본래 공통된 D-구조에서 파생되는 것을 가정할 수 있고, 곧 개별언어의 Parameter의 차이, 곧 수동술어 범주의 Parameter의 차이로 인해서 두 언어의 수동문의 파생과정과 수동형태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공철(1980), 일본어문법론, 탑출판사.
_____ (1983), 일본어음운론, 학문사.
_____ (1989), 언어연구의 기초이론, 한신문화사.
_____ (1995), 일어통사론, 도서출판 글.
_____ (1996), 일어생성음운론, 한국문화사.
- 양동휘 외(1991), 지배결속이론의 기초, 한신문화사.
양동휘(1994), 문법론, 한국문화사.
- 趙成植(1990), A Dictionary of English Linguistics. 新雅社.
한학성(1990), GB통사론, 翰新文化社.
- 安藤貞雄 外(1993), 生成文法用語辞典, 大修館書店.
井上和子(編) (1989), 日本語文法小辞典, 大修館書店.
今井邦彦(編) (1986), チョムスキー小辞典, 大修館書店.
久野暲(1977), 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高野泰邦(1995), 現代言語学の方法, 多賀出版.
中村捷 外(1989), 生成文法の基礎, 研究社.
中村捷(1991), 受動形態素の普遍的特徴, 日本語学 第十卷第一号.
仁田義雄(1993), 持ち主の受身をめぐって, 益岡隆志外, 高度な日本語記述文法書作成
のための基礎的研究.
長谷川信子(1990), 原理とパラメータのアプローチにおける受動構文, 認知科学の発展 2. 講
談社. 東京.
平河内健治 外(1990), 生成文法の 方位, 松柏社.
三原健一(1990), 多重主格構文をめぐって, 日本語学 第九卷 第八戸.
三原健一(1994), 日本語の統語構造, 松柏社.

-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이홍배 역; 지배·결속이론, 한신문화사, 1987)
- _____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MIT Press.(安井稔 外 譯 ; 統率·束縛理論의
 意義と展開, 研究社, 1987)
- Cook, V.J.(1988), Chomsky's Universal Grammar, Basil Blackwell.(須賀哲夫
 譯; チョムスキ-의 言語理論 ; 普遍文法入門, 新曜社, 1990)
- Hasegawa, N.(ed.)(1993), Japanese Syntax in Comparative Grammar, Kurosis
 Publication.
- Howard, I and A.M.Niyekawa-Howard(1976), Passivization in M. Shibatani
 (eds), Syntax and Semantics, Vol.5, Japanese Generative Grammar,
 Academic Press.
- Kuno, Susumu(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The MIT
 Press.
- Kuroda, S.Y.(1965), Generative Grammatical Studies in the Japanese Language,
 M.I.T. (Garland Publishing, Inc. 1979)
- _____ (1992), Japanese Syntax and Semantic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Nishigauchi, Taisuke(1993), Long Distance Passive, in Hasegawa, N.(ed.)
 (1993)
- Miyagawa, S.(1989), Structure and Case Marking in Japanese. Syntax and
 Semantics 22, Academic Press, Inc.
- Morikawa, S.(1993), A Parametric Approach to Case Alternation Phenomena
 in Japanese, Hituzi Syobo.
- Radford, A.(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홍배 역; 통사론, 한신문화사, 1984)
- Shibatani, M.(1972), Discussion. Papers in Japanese Linguistics 1.

Shibatani, M.(ed)(1976), Japanese Generative Grammar, Syntax and Semantics
5, Academic Press.

Takahashi, Masuoka(1983), Passivization in Japanese and Cross-Linguistic
characterization. kansai Linguistic Society, 8. Annual Meeting.

Tsujimura, N(1996), An Introduction to Japanese Linguistics.



<Abstract>

A Generative Grammatical Approach to the Japanese Passives

Kim Seon-Ju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Republic of Korea

Advisor: Professor Kim, Kong-Chil

There are two kinds of passive constructions in Japanese: the direct passive and the indirect passive. It has been difficult to elucidate the rela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struc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raditional grammatical theories in the pas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a) the evolution in understanding of the two constructions by generative grammarians, and (b) the rela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stru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and (c) the generative processes of the two passives from the same deep structure.

Initially, in generative grammar, it was viewed that passive constructions were derived from the active voice through transformation rules. During the seventies, two contrasting views co-existed. Uniform theorists argued that both the direct and the indirect passives were derived from the embedded sentence construction. However, Nonuniform theorists maintained that the direct passiv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1999.

was derived from the active construction and the indirect passive construction from the embedded sentence construction. The author agrees with the first position which posits the identical deep structure for the two kinds of passives, which share the passive morpheme, *rare*. However, the discussion during the sixties and the seventies had the shortcomings of having to employ complicated transformational processes using various transformational rules and constraints. Explanation of the two passive constructions may render less complicated when examined within the framework of GB theory, which operates on the basis of principles, instead of rules.

In GB theory, passive constructions are explained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se Theory and θ -Theory. More specifically, a separate deep-structure for the passives is posited and the VP-Internal Subject Hypothesis, the Case Absorption Hypothesis, and the θ -Role Absorption Hypothesis are employed to describe the two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 Case Absorption Hypothesis, the passive construction is derived through transformational processes involving objective absorption of the passive morpheme and subjective θ -role absorption. However, the Case Absorption Hypothesis cannot fully explain the Japanese indirect passive construction. Consequently, it was posited that θ -role absorption of the passive morpheme was obligatory and case absorption was optional. Nevertheless, this explanation based on the θ -Role Absorption Hypothesis remains problematic. That is because (a) it cannot present a uniform deep-structure for the direct and indirect passives, and (b) the reason for generating the 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 for the indirect passive is unclear and this requires re-examination of the function of the passive morpheme.

In the present study, the two kinds of Japanese passive construction will be explained based on (a) the VP-Internal Subject Hypothesis, through which one

can posit an identical deep-structure for the two passives that takes the passive morpheme as an upper level predicate, and (b) verb movement, which posits movement of a verb depending on the lexical category of the passive morpheme and attachment of the verb to the passive morpheme. In other words, the English passive morpheme *-en* belongs to [+N] category and thus requires a case and, subsequently, a transitive verb.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passive morpheme *rare* belongs to [-N] category, thus, requires neither a case nor a transitive verb. Due to this characteristic of *rare*, both the passives involving intransitive verbs and transitive verbs may be possible in Japanese. The verb movement occurs not only at the syntactic level but also at the phonological level. Thus, it may generate (1) the direct passive, which is an operation at the syntactic level, (2) the indirect passive involving the transitive verb, an operation at the phonological level, (3) the passive involving the intransitive verb, an operation at the syntactic and the phonological levels, and (4) the honorific form of the passive, an operation at the phonological level.

The present approach to explain the Japanese passives may be considered advantageous because, based on verb movement, one deep-structure may be posited for different kinds of passives, and it is possible to explain more clearly, the passive involving the intransitive verb and the indirect passive involving the transitive verb. Moreover, it is possible to posit an identical deep-structure for English and Japanese passive constructions. Thus, it becomes possible to elucidate the derivational processes and the different passive constructions in the two languages, based on the difference in the value in the parameter of the lexical category of the passive morpheme in each individual language.